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장기요양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정책 · 법령 · 공단공지와 현장뉴스는 전국 단위로 발생하지만, 실제 영향과 정보수요는 지역의 고령인구 구조 · 1인가구 비중 · 인구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.
- CAREBON365 와 CAREBON NEWS는 공식정보와 현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, 지역별 콘텐츠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정하기 위해 공간통계 기반의 판단기준이 필요했다. SGIS는 행정구역 단위의 인구 · 가구 · 고령화 지표를 지도에서 비교할 수 있어 이 문제를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했다.

□ 추진과정

- 2026년 9월 SGIS의 고령화 현황보기, 대화형 통계지도, 지역변화 분석지도를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CAREBON의 지역정보 업무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정리했다.
- 고령화 현황보기에서는 노인인구비율 · 노인인구 · 노령화지수 · 85세 이상 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고, 대화형 통계지도에서는 65세 이상과 1인가구 조건 등을 지역 단위로 조회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. 지역변화 분석지도는 시군구 중심으로 지역의 변화 흐름을 확인하는 데 활용했다.

▪ 활용분야 및 주요내용

- 고령화 현황보기: 노인인구비율·노인인구·노령화지수·85 세 이상 인구비율을 지역 비교 기준으로 활용
- 대화형 통계지도: 65 세 이상 인구, 1 인가구 등 인구·가구 조건을 지역 콘텐츠 우선순위 설계에 활용
- 지역변화 분석지도: 시군구 단위 인구 및 지역변화 흐름을 확인해 지역 모니터링 범위를 보완
- 적용 대상: CAREBON365 정책·공공정보의 지역 태그 및 CAREBON NEWS 지역뉴스 우선순위

□ 추진내용

- SGIS 지역통계를 단순 조회에 그치지 않고 CAREBON365 · CAREBON NEWS의 정보선별 기준으로 연결했다.
- ① SGIS 에서 고령화 · 인구구조 · 지역변화 지표 확인 → ② 지역별 모니터링 우선순위 설정 → ③ CAREBON365 에서 해당 지역에 영향을 주는 법령 · 고시 · 공단공지 · 지자체 정책을 분류 → ④ CAREBON NEWS에서 같은 지역의 장기요양 · 노인복지 · 통합돌봄 · 기관 사건사고 · 지원정책 뉴스를 선별 → ⑤ 공식정보와 현장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. 대전광역시 서구를 예시 지역으로 조회하면서 행정구역 단위로 고령화 지표와 인구구조를 확인하는 흐름을 검증했다.
- 이 방식은 “전국에서 발생한 정보를 모두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방식”에서 벗어나,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구조를 근거로 어떤 지역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설명할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둔다.
- 향후에는 SGIS 지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지역 태그, 관심지역 알림, 지역별 장기요양 정보수요 분석에 연계하고, 공개된 지역통계와 CAREBON 내부 콘텐츠 분류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 맞춤형 정보추천으로 확장할 계획이다.

□ 추진성과

- 지역 콘텐츠 기획 과정에 SGIS라는 객관적 공간통계 기준을 도입하여, 지역 선택과 정보 우선순위를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했다.
- CAREBON365는 “공식 정책·제도 정보”, CAREBON NEWS는 “지역 현장뉴스”라는 역할을 유지하면서 SGIS를 공통 지역분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. 정량적인 성과를 과장하지 않고, 현재 단계에서는 ① 지역분류 기준 마련 ② 콘텐츠 우선순위 기준 마련 ③ 지역 맞춤정보 확장 구조 설계라는 실무 성과를 확보했다.
- 향후 실제 이용데이터가 축적되면 지역별 조회·검색 패턴과 SGIS 지표를 비교해 지역 맞춤 콘텐츠의 적합도를 검증하고, 장기요양기관·종사자·보호자가 필요한 정책 및 현장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.

SGIS → CAREBON 지역정보 활용 흐름

1. SGIS 지역통계	2. 지역 우선순위	3. CAREBON365	4. CAREBON NEWS	5. 지역 맞춤정보
고령화·인구·가구·지역변화	관심지역·주제 설정	정책·법령·공단정보 분류	지역 현장뉴스·사례 분류	공식정보+현장정보 연결

※ SGIS 활용 확인 경로: 고령화 현황보기, 대화형 통계지도, 지역변화 분석지도. 실제 지역값은 SGIS 화면에서 최신 제공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며, 본 응모작은 과장된 수치 제시보다 업무 적용 구조와 재현 가능한 활용방법에 초점을 두었다.

